

◎IP를 알자

- 전화의 역사로 보는 한국 지식재산 01
- 한국IP뉴스 05
-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자궁' 06
 - 한국 특허청 2024년도 예산으로 보는 정부 기술 시책 방침
 - 기술 유출 방지 강화책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한국 IPG의 활동

-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조사해봅시다!'을 주제로 08
제38회 한국 IPG세미나 개최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사무국 메시지

어느덧 푸르른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4년 8월 시행 예정인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서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배상액이 몇 배가 되었을까요?

- ① 3배 ② 5배 ③ 10배

※ 정답은 본지 4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IP를 알자

전화에 관한 지재, 기술, 디자인 역사



최달용 (崔達龍) 선생님

미국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특허 등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럽에서도 삼성의 출원 건수가 눈에 띄며 세계적으로 지재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현저한 재식재산 활동을 하는 삼성전자에서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은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도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 통신기기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는 비교적 짧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급격한 기술 혁신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64호에서는 한국의 전화 기술과 지재 역사를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수집품을 보유하고 계신 변리사 최달용 선생님을 찾아보았습니다.

◎ 초기 전화기

다이얼은 없으며 전화기가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전화기 측면에 달린 회전식 손잡이를 돌려 전화를 거는 전화기가 발명되었습니다(①참조). 이후 전력을 자체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전화기가 개발되었는데, 아직 다이얼이 없었기 때문에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교환원에게 통화가 연결되는 형식이었습니다(②참조).



① 초기 전화기

하단 우측에 있는 손잡이를 회전하여 전력을 발생시켜 전화를 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석식 전화기).



② 수화기를 들면 교환원에게 연결되는 구조

손잡이를 돌려 전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는 전화기가 개발됩니다. 이 시기에도 다이얼은 없는 형태입니다. 당시는 전화국 통신 시설이 부족했고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화기 중앙부에 통화를 일찍 끝내도록 촉구하는 '용건만 간단히'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공전식 전화기).

● 다이얼식 전화기

여기서 드디어 다이얼식 전화기가 등장합니다(③참조). 회전식 다이얼로 통화하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게 기술 혁신이 일어났으며 흥미로운 기술 진화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이얼식 전화기
드디어 다이얼식 전화기가 등장합니다. 필자의 세대는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는 추억의 전화기입니다. 전화 통신망이 만들어져 전화번호가 부여되었고,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거는 구조로 기술이 변천하여 전화기의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당시 통화 요금이 비쌌기 때문에 상점 등에서는 사진과 같이 다이얼에 자물쇠를 걸어 타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④ 화기 뒷면에 부착된 벨소리 조절 다이얼
해당 다이얼을 조작하면 전화벨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국유 특허 기술입니다.



⑤ 다이얼식 전화기의 내부 구조
벨과 코일의 중간 하단부에 위치한 사각 구멍 안에 있는 벨소리 조절 다이얼을 돌리면 스프링 해머의 이동폭이 바뀌어 음량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전화기 뒷면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벨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④참조). 당시 한국 공무원들이 해당 기술을 한국 특허(실용신안)로 등록하여 표준 사양이 되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달용 선생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hoipat3/223412636799>)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달용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지재의 길을 걷게 되신 에피소드도 함께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녹음 재생

전화기 본체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주변 장치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에 사전 녹음한 응답 메시지를 자동 재생하는 장치도 개발되었습니다(⑥참조).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 그에 응답하듯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⑥ 녹음 음성 재생 장치
전화기 본체뿐만 아니라 부속 장치에도 새로운 발명이 탄생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소형 카세트 테이프에 사전 녹음한 음성이 자동 재생되는 장치나 부재중 메시지 녹음 기능도 개발되어 전화기 부속 상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 푸시 버튼식 전화기

드디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푸시 버튼식 전화기가 등장합니다. 0~9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 푸시 버튼식 전화기는 푸시 버튼이 사각형으로 배치된 전화기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전화기의 출시 당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의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⑦ 푸시 버튼식 전화기의 탄생에도
다이얼식 전화기에 이어 푸시 버튼식 전화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다이얼을 돌려서 전화 거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푸시식 버튼을 다이얼식 전화기와 같은 위치에 배치한 전화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화기의 디자인 속에는 이러한 역사적 스토리가 숨겨있습니다.

● 통화 외의 기능

또한 전화기의 주요 기능인 통화 이외의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문자만을 송수신 할 수 있는 TELEX에 이어 정지화면을 송수신 할 수 있는 FAX까지 보급됩니다(⑧참조). 이뿐만 아니라 TV 모니터와 카메라를 전화기 본체에 연결해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개발됩니다(⑨참조).



⑧ 팩시밀리(FAX)
전화선을 이용하여 문자나 도형, 이미지 등 정지화면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송수신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⑨ TV 전화기
전화기로 음성 소통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에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된 획기적인 기술이 실현됐습니다

● 다양해진 디자인

전화기의 모양도 다양해졌습니다(⑩참조). 그동안 수화기를 가로로 내려놓는 디자인이 주류였지만 세로로 내려놓는 전화기도 개발됩니다. 또한 푸시 버튼을 피아노 건반 형태로 만든 전화기나 얼핏 보면 전혀 전화기로 보이지 않는 디자인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디자인 전화기가 등장합니다.



⑩ 다양한 디자인의 전화기
약기나 기존 전화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물건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등 가지각색의 전화기도 등장합니다.

● 삐삐, 시티폰

지금까지 고정 전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식이 아닌 통신 기능을 탑재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삐삐는 작은 화면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으며 무선으로 정보를 수신하는 구조를 지닌 장치입니다(⑪참조). 무선 장치이기에 휴대도 가능합니다. 문자 정보는 아직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통화는 불가능 합니다.



⑪ 삐삐
숫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를 '8282'로 바꾸는 식입니다.



⑫ 시티폰
야외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시티폰 송신 기능을 할 수 있어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공중전화 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거는 송신만 가능한 전화기도 등장합니다.

시티폰은 일본에서는 흔히 PHS라고 불리는 휴대전화입니다(⑫참조). 겉으로는 통화가 가능해 보이지만 시티폰이라 불렀던 이 시절의 휴대전화는 직접 통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통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에 마련된 중계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화를 걸고 싶을 때는 시티폰을 가지고 공중전화 근처까지 가야지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 공중전화

통화를 가능케 한 또 하나의 장치인 공중전화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중전화는 동전이나 전용 카드를 사용해서 통화하는 장치이며 일반 가정집에 있는 고정 전화와 비교하면 동전 등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⑩참조).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동전과 관련된 기능이 갖춰진 점과 수리와 관리가 편하도록 개폐 구조로 만들어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기 위치가 세로 뿐만 아니라 가로인 공중전화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전화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인지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을 사용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⑩ 공중전화

휴대전화 1인 1대가 당연한 현재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통화를 하려면 동전과 텔레폰 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내부는 수리나 관리가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에 배치된 공중전화에는 시내 전용과 시외 전화도 가능한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세대부터 현재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더욱 강화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추후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본지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용 선생님을 비롯해 최달용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여러분, 전화기 역사에 관한 취재와 귀중한 수집품 견학에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PG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지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제공

- 한국 지식재산 뉴스 (뉴스레터 매달 2회 발행)
- 법률 개정 정보, 정책 정보, 통계 정보
- 지재 판례 데이터베이스 (2001년 이후 500건 이상의 지재 판례 개요 및 전문가 조언 제공)
- 각종 조사보고, 매뉴얼 등 제공 중



<https://www.jetro.go.jp/korea-ip>



정답은 ② 5배 입니다. 기술달취 3중 세트로 불리는 ▲특허침해권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배상액은 개정 전에 3배였으나 8월 개정 이후에는 최대 5배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끌어올려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신산업분야 상표심사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 한국특허청 (2024.1.16.)

특허청은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산업상표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 연구개발업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속성을 가지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 자율주행(자동차, 소프트웨어 및 센서의 융합 상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업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상품) 등

최근 3년간('20년~'23년) 주요 융복합·신산업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은 연평균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이루어져 첨단 융복합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신산업상표심사과'를 신설해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심사 강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② 스크린스포츠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 한국특허청 (2024.3.5.)

특허청이 세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에 출원된 스크린스포츠 특허를 분석한 결과, '02년에 49건에서 '21년 203건으로 스크린 골프·야구 등 시장 성장과 함께 연평균 7.8%씩 증가했고, 골프존, SG골프 등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의 성장이 본격화된 '16년 이후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한국(58.4%, 1,715건)이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미국(17.0%, 500건), 일본(8.9%, 262건), 중국(6.4%, 188건), 덴마크(4.1%,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이상호 심사관은 "스크린스포츠가 가상현실 기술 발전에 힘입어 현장 스포츠의 보완재·대체재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③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전담심판 확대해 첨단기술 집중지원!

한국특허청 (2024.3.5.)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 심판부 운영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② 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③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은 불필요한 공방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심리 절차를 적극 활용('24. 3월)한다. 신속한 심리절차로 기업의 분쟁대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24. 3. 15. 시행)으로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판에 생소한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어들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한국특허청 (2024.3.25.)
'23년 지식재산(IP) 금융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3년 IP금융 잔액은 9조 6,100억원으로 집계됐고, '23년에 신규로 공급된 금액은 3조 2,4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IP담보대출(9,119억원)은 전년(9,156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신규 담보대출을 실행하려는 유인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우수 기술력을 갖춘 저(低)신용기업에게 중요한 자금 공급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된다.

IP투자(1조 3,365억원)는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벤처기업자본(캐피탈) 등 민간투자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투자기업을 확대하면서, 기업 성장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보증(9,922억원)은 전년(8,781억원) 대비 13% 증가해,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PG

File No.185

한국 특허청 2024년도 예산으로 보는 정부 기술시책 방침



2023년 12월 21일, 한국 특허청의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7,390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7,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 배분이 중점적으로 확대된 주요 사업비가 있으며, 해당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9억원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지체 행정은 어떠한 기술시책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지 주요 사업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주요사업 영역

2024년도 예산이 중점 배분된 주요 사업은 다음의 4가지 영역입니다. 모두 현재 한국의 최우선 과제와 관련된 사업 영역으로, 한국 정부가 과학기술 시책에서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을 지원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력을 강화하는 사업
-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 및 평가 시스템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
- 국가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확대 사업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사업

2. 수출력 강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도에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 11개국을 대상으로 설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대상국을 4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P-DESK는 뛰어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에서 지체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꼼꼼히 대응해 주는 든든한 조직입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을 지체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영역을 강화합니다. 예산액은 2023년도에는 33억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54억원으로 21억원 증액했습니다.

3. AI활용

특허청이 소관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출원 건수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심사 실무를 수행하는 심사관 수는 공무원 정원 관계로 즉각적으로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 분류 서비스'를 연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AI 기반 특허 행정 개혁

예산을 2023년도 19억원에서 2024년도 2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지식재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IP거래 및 IP이전에 활용 가능한 가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지식재산의 활용 및 확산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2024년도에 새로 9억원 확보했습니다.

4. 국가 핵심 기술 보호

반도체 기술을 비롯하여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특허청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과 방위산업 기술 등 경제 안보 관련 특허 출원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2023년도에 23억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34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영업 비밀 보호 관련 상담 대상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기관까지 확대되며, 관련 예산은 2023년도 25억원에서 2024년도 3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식재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위원회의 운영 예산도 확대되어 2023년도 3억원에서 2024년도에는 6억원이 되었습니다.

5. 지식재산 인재 육성

지역 주력 산업 등에 특화된 지체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대학교에 지체 융합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지식재산교육 거점 역할을 맡는 지식재산 중점대학이 있습니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지역별로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지정하였고 2023년에는 경상국립대학교(울산, 경남), 전남대학교(광주, 전남), 충북대학교(충북), 충남대학교(대전, 세종, 충남), 경북대학교(대구, 경북), 강원대학교(강원)의 6개 대학교를 지정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점대학을 9개로 확대하여 2023년도에는 44억원이었던 예산을 2024년도에는 66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중부권 지역발명 교육의 핵심축이 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건설 관련 예산도 설계비용이 2023년도 6억원에서 2024년도 1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 마무리

'수출', 'AI 활용',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지식재산 인재 육성'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2024년 지체 행정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아마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File No.186

기술 유출 방지 강화책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2024년 1월 25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됩니다.

1. 개정안 통과 배경

현재 반도체 기술처럼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우수한 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기술 전문 인력을 해외 기업이 헤드헌팅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직을 권유해 고용하는 형식으로 기술 탈취를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기존에도 법률상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마땅한 벌금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발명자 허가 없이 부당하게 타인이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할 경우, 해당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하여도 시정 권고에 그칠 뿐, 더 이상의 처벌이 없는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의도적인 기술 유출 수법이 보다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당의 협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실태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범죄 건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400건 내지 500건의 높은 수준입니다. 고도 기술이 유출되면 단 1건이라 할지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년	2017	2018	2019	2020	2021
검거 건수 (건)	401	540	487	592	387
검거된 법인 수(개)	136	163	204	215	113

3.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A)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B)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강화, C)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의 3가지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A)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해당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로 대표적인 기술 탈취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내용,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의 최대 3배로 강화하여 법인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내용,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완전히 몰수하여 침해 물품 유통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B)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해당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 시정명령, 벌금 부과'로 특허청이 행정조사 수행 후 부정경쟁행위자에게 시정권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및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절차 규제 정비'로 피해자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청이 수행한 행정조사 기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이 포함된 행정조사 기록도 법원에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행정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규제 신설'로 소정의 행정조사 기록을 당사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 등에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C)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해당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 관련 규정'으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이 불가능했던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의 보호 범위 확대'로 비밀관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량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보호하도록 데이터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4.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기존보다 공강히 강력한 보호 기능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 기대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오오즈카 유우이치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2년 일본특허청 입청. 특허 심사관·심판관으로서 심사·심판 업무 및 관리직에 종사. 일본특허청 총무과·조정과·심판과 과장보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연구원, 아마치 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부교수, INPIT 지식재산인재부장 등을 역임.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조사해 봅시다!’를 주제로 제38회 한국 IPG세미나를 개최



강연 장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일본에서 약 29만 건, 한국에서 약 24만 건이었습니다. 특허 정보 획득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회 도입을 위한 기술 정보의 보고이며 연구 개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는, 일본의 독립 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이 제공하는 J-PlatPat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J-PlatPat의 이용방법 등을 이해하는 자리로서 2024년 5월 9일 '일본어로 한국 특허 정보를 조사해 봅시다!'를 주제로 제38회 한국 IPG 세미나 (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가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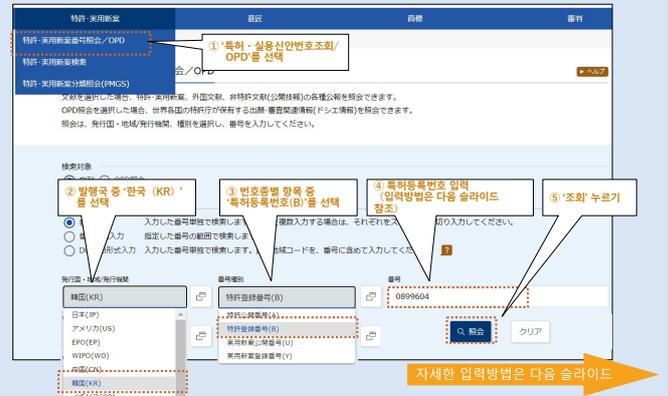
이번 세미나에서는 J-PlatPat을 운영하는 INPIT의 후쿠무라 타쿠 지재정보부장, 다치바나 신이치로 지재정보부주사, 오오하시 히로타카 총무부 총괄담당이 강연을 맡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

J-PlatPat에는 각종 한국 특허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있으며, 번호로 문헌 조회를 하거나 한국어로 기재된 내용을 일본어로 기계 번역하여 일본어 키워드를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검색 방법과 예상치 못한 함정에 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조회나 검색을 통해 얻은 문헌을 표시할 때 한국어 원문과 일본어 기계 번역문을 바꿔가며 참조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특허등록번호를 활용한 문헌조회 방법

팸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특허등록번호 '등록번호 10-0899604'를 검색 (번호는 예시입니다)



등록번호로 한국 특허 문헌을 조회하는 방법(예시)

아울러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는 문헌에 대해서도 OPD(One Portal Dossier)를 사용하여 각국 심사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원문과 번역문을 자유롭게 바꿔가며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워드 검색과 관련해서는 AND 및 OR 검색 개념과 노이즈를 줄이는 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주변검색기능의 활용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원인 검색 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명을 가능한 한 누락 없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직접 발표자가 J-PlatPat의 이용 방법을 시연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IPG